

어린이 「性고민」 크게 늘어

전화상담에 비친 실태

『남자와 여자는 왜 결혼을 할까』『아기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』 어린이들의 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. 『아직 어린아이인데 왜...』 하고 생각하던 부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던지는

실제로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상담전화인 「신나는 전화」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보면, 작년의 경우 교육문제, 중증 이성문제, 학습문제에 이어 성문제는 다섯번째로 많이 올랐으며

10%포인트 증가했다. 또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성지식과 자기보호, 이성친구에 대한 호기심을 상담해왔으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고 고민하거나 성이용 비디오나 잡지를 보고 성충동을 느낀다고 호소해온 어린이도 적지 않았다는 것.

이와관련 「신나는 전화」

을 어린이 되는 기쁨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.

또 대부분의 부모들은 신체부위에 대해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지만 되도록 정확한 표현을 해야 성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.

韓심장은 또 「최근에 개발된 성교육비디오메이프나 슬라이드 성교육동화 등 성교육교재를 부모가 어린이와 함께 보며 얘기를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한다. 대한가족계획협회나 성바오로서원에서는 최근 성교육용 비디오메이프나 슬라이드를 제작 보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빌려다 볼 수 있다.

그러나 성교육동화책에는 내용이나 그림이 조잡해 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만 자극하는 것도 있으므로 부모가 신중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.

한편 한국어린이보호회(☎5242) 전교조각지회(☎6181) 서울YMC A(☎8291) 등 사회단체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
또 어린이상담전화는 △신나는 전화(☎6233) △어린이정신상담소(☎1500) △원광아동상담소(☎2082) △새싹의 전화(☎0815) △서울아동상담소(☎0862) △자광아동기정상담소(☎0886) 등이 있다.

△李英伊기자



밝고 맑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. 아이들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성교육이 시급하다.

사회풍조 早熟 好奇心 높아져 잡지등 보고 성충동 호소 경우도 “부끄러운 것 아니다” 솔직한 교육 필요

최근 사회풍조가 早熟(早熟)되고 호기심이 높아져 잡지 등을 보고 성충동 호소 경우도 늘었다. “부끄러운 것 아니다” 솔직한 교육 필요

최근 사회풍조가 早熟(早熟)되고 호기심이 높아져 잡지 등을 보고 성충동 호소 경우도 늘었다. “부끄러운 것 아니다” 솔직한 교육 필요

△李英伊기자

질문에 『내아가 벌써...』라며 놀란다.

특히 최근 사회전반적인 성개방풍조와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조속으로 성에 대한 관심이 빨라지고 있지만 이에 앞서는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

비율은 지난해 29%였는데 올해는 39%로

비율 상승

비율 상승

비율 상승

비율 상승